

# 레미콘 산업동향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과〉

## 1. 1997년 2/4분기 건설경기동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1997년 2/4분기 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97년 2/4분기중 실질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등 내수가 계속 부진하였으나 수출이 중화학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6.3%(상반기중 5.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중 건설업은 공항, 항만 등 사회간

접자본시설은 꾸준히 늘었으나 상반기중 대형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건설업체들이 신규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공장, 상가 등 건물건설이 계속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1%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민간 부문의 토목건설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상반기 건설경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각부분및 공종별로 증가세가 감소하

〈표 1〉 건설업 성장률 및 건설투자의 증가율 추이

(단위: %)

구 분		기 간		96년p			97년p	
		1/4	2/4	3/4	4/4	년 간	1/4	2/4
건설업		10.4	6.7	7.5	3.7	6.7	-1.0	1.1
민 간 건 설	합 계	8.5	2.6	2.9	2.6	3.9	-1.9	0.2
	주거용	6.9	-1.7	3.3	-6.4	0.4	-8.1	-1.8
	비주거용	3.8	-5.1	-9.5	1.4	-2.4	-3.6	-4.7
	토 목	25.6	21.2	17.2	15.2	18.7	16.5	6.7
정부건설		27.5	18.4	19.6	4.3	14.3	0.0	1.4
건설투자		11.2	5.6	7.1	2.8	6.3	-0.9	1.1
건물건설투자		6.4	-1.3	-0.4	-3.7	0.2	-5.0	-1.8
기타건설투자		23.8	17.1	19.4	10.0	16.1	8.4	5.2

자 료 : 한국은행 '1997년도 2/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참조

거나 완만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2/4분기 건설업은 전년대비 1.1% 증가에 머물렀다.

이중 민간건설은 항만, 공항, 철도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영향으로 1/4분기에 이어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공장, 상가, 단독주택 등 비주거용 및 주거용 건물건설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주택의 장기적 적체로 말미암아 모두 줄어들어 총 0.2% 증가에 머물렀다.

또한 정부건설도 공공관서 등의 건물건설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도로 및 도시 토목공사가 부진하여 1.4% 증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1% (전분기 : -0.9%)에 머물렀다. 이중 건물건설투자는 공장, 상가 등 비주거용과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건설이 모두 줄어 1.8% 감소하였으며 기타건설투자의 경우 항만, 공항, 철도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호조를 보였으나 도로, 도시토목 등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여 전체로는 5.2% 증가에 그쳤다.

건설교통부의 상반기 건축허가 동향에 의하면 '97 상반기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표 2>에서와 같이 54,832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516천㎡에 비해 0.6%의 저조한 성장에 머물렀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5월중 일시적으로 미분양주택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중소도시의 택지개발이 활기를 띄면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신축이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 지속된 미분양주택의 적체에 따른 주택 경기의 저조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749천㎡에 비해 1.6%감소한 29,261천㎡가 허가되는데 그쳤다.

또한,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은 한때 서울일원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지방공단의 공장신축이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공장 신증설과 설비투자를 기피하는 등 공장 신증축이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전년 5,823천㎡대비 17.2%감소한 4,824천㎡가 허가되었으며 기타 문교·사

〈표 2〉 97년 상반기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위 : 천 ㎡, %)

구 분	1/4분기			2/4분기			상반기		
	97년	96년	증감율	97년	96년	증감율	97년	96년	증감율
전 체	22,853	23,655	-3.4	31,978	30,861	3.6	54,832	54,516	0.6
주거용	11,674	12,596	-7.3	17,589	17,153	2.5	29,261	29,749	-1.6
상업용	6,100	5,935	2.8	7,704	7,380	4.4	13,804	13,315	3.7
공업용	2,334	2,685	-13.1	2,489	3,144	-20.1	4,824	5,823	-17.2
기 타	2,746	2,439	12.6	4,197	3,182	31.9	6,944	5,623	23.5

자료 : 건설교통부

회용은 서울, 부산, 대전 소재 교육기관의 신축이 증가하면서 상반기에 총 6,944천㎡가 허가되어 전년 5,623천㎡에 비해 23.5%증가하였다.

## 2. 하반기 경제 및 건설경기 전망

### 1) 97년 하반기 경제 전망

한국은행의 97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하반기 중에는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겠으나, 수출과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이와 함께 민간소비도 차츰 회복세에 접어듬에 따라 성장률이 6.3% 내외로 상반기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연간으로는 6%정도 성장)되며 경상수지 적자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높은 부도율 등 기업

경영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설비투자가 계속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경기가 회복기에 들어가더라도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는 높은 재고수준과 기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계속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 2) 건설경기 전망

국토개발연구원의 하반기 건설경기전망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건물건설도 주택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되면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표 3>에서와 같이 건설투자는 3/4분기서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4/4분기부터는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하반기중 4.5%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97년 하반기 건설투자 전망

(단위 : 10억원, %)

구 분	주 거 용	비 주 거 용	토 목 용	총건설투자
97년 3/4분기	5,047.8 (0.9)	3,714.4 (-1.4)	6,821.9 (7.2)	15,584.1 (3.0)
97년 4/4분기	4,383.5 (1.2)	3,843.6 (1.1)	9,197.9 (10.6)	17,425 (5.9)
97년 하반기	9,431.3 (1.0)	7,558.0 (-0.1)	16,019.8 (9.1)	33,009.1 (4.5)
97년 년 계	18,278.7 (-1.7)	15,198.3 (-1.2)	26,441.3 (8.0)	55,918.3 (2.5)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표 4> 97년 하반기 건설공사 수주액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기간	공 공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토 목	건 축	토 목	건 축
1996년	248,540	76,743	39,782	372,820	288,322	449,563
97년 6월 <sup>P</sup>	162,390	23,370	21,750	215,740	184,140	239,110
97년 12월 <sup>P</sup>	160,400	46,600	22,260	242,740	182,660	289,340

자료 : 장은증권

다. 이에 따라 3/4분기 건설투자는 토목용 6조8천219억원, 주거용 5조478억원, 비주거용 3조 7천144억원등 총 17조4천52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증가하고, 4/4분기에는 총 17조4천25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은행의 "97년 2/4분기 및 3/4분기 주택건설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96년 4월), 분양가에 대한 규제완화 확대('97년 6월) 등 주택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으로 2/4 분기 이후 주택건설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건설경기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은증권은 하반기중 건설공사 총 수주액은 47조 2,1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하는데 그쳐 상반기에 비해 증가율

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3. 97년도 상반기 레미콘산업동향 및 98년도 전망

#### 1) 97년도 상반기 레미콘산업동향

레미콘 산업은 상반기 중 건설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정부주도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전국 542개업체 697개공장에서 총 61,370,519m<sup>3</sup>를 생산하여 전년 같은 기간의 56,509,904m<sup>3</sup>보다 8.60%의 안정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건설경기의 둔화 추세가 전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음에도 레미콘 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나타내었던 것은 상반기중 일부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소 규모의 공동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표 5〉 전국 레미콘생산업체 현황

(1997년 6월 30일 현재)

구 분 지 역	업체수	공장수	배 처 플 란 트			레 미 콘 믹서트럭 보유대수	시 멘 트 사 이 로 (Ton)
			기 수	레미콘생산능력			
				m <sup>3</sup> /hr	천m <sup>3</sup> /년		
서울·경인	106	155	250	45,720	91,440	7,450	166,930
강 원	65	73	78	10,210	20,420	1,163	34,650
충 북	42	44	53	7,220	14,440	920	22,920
대전·충남	69	86	114	17,504	35,008	2,027	72,890
전 북	43	48	63	9,780	19,560	1,085	36,510
광주·전남	59	74	90	14,130	28,260	1,862	49,470
대구·경북	88	98	127	20,004	40,008	2,312	93,810
부산·경남	94	106	152	23,739	47,478	3,223	103,225
제주	13	13	17	2,580	5,160	275	9,180
전국총계	542	697	944	150,887	301,774	20,317	589,585

주 : 1. 전국 업체수는 지역 중복을 피한 수치임.  
 2. 연간 생산능력은 년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3. 시멘트사이로는 각 레미콘공장 보유 시멘트사이로의 합계임.

전년에 이어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공공시설 물에 대한 건축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급 레미콘 물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며, 콘크리트구조물이 점차 고층화, 대형화 추세로 전환하면서 고강도, 고품질의 레미콘을 요구함에 따라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레미콘의 투입물량이 현저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수요별로 살펴보면 민수가 전년 47,527,380m<sup>3</sup>대비 7.20%증가한 50,950,629 m<sup>3</sup>를 생산하였으며, 관수는 총 10,419,890m<sup>3</sup>를 생산하여 전년 8,982,524m<sup>3</sup>대비 16.0%증가하여 민수보다 관수용 레미콘이 전체 레미콘산업경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대형 건설업체들의 도산 및 장기적인 미분양주택의 적체등 민간건설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공공 건설은 국도확·포장공사, 교량, 항만등 SOC시설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관수에 대한 민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상은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되어 민간건설경기가 호전되지 않는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 생산량을 월별로 살펴보면 1/4분기 중 레미콘은 강원북부와 경기북부지역의 수해 복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교육시설, 관공서공사 및 상업용 건물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주택수요가 주춤한 수도권지역 및 대전·광주 등 대도시지역을 제외한 춘천, 진주, 천안등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아파트등 주택건설이 증가하면서 총 22,948,364m<sup>3</sup>를 출하하여 전년 20,152,407m<sup>3</sup>보다 13.87%증가하였다.

한편, 5월중에 예년과 달리 잦은 우천으로 인하여 현장수요가 줄어들면서 전년 같은기간

보다 레미콘출하가 감소하였으나 6월에 들어서 전월 우천관계로 진행되지 못한 공사가 이월되었고 장마철을 앞두고 공사를 급진전하여 전년 10,368,994m<sup>3</sup>대비 26.72%(61,370,519 m<sup>3</sup>)가 증가함에 따라 이 기간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관광위락시설 및 상업용 건물 등을 중심으로 레미콘 출하가 급증한 제주지역이 전년 676,748m<sup>3</sup>대비 21.60%증가한 822,913m<sup>3</sup>를 출하하였으며 강원지역은 수해 복구 및 방지 시설과 춘천을 비롯한 도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건설 및 일반 주택 건설이 호조를 보여 전년 2,492,189m<sup>3</sup>대비 21.46%증가한 3,026,957m<sup>3</sup>를 출하한 것으로

〈표 6〉 97년 상반기 지역별 레미콘 출하실적

(단위 : m<sup>3</sup>, %)

지 역	수요별	1997	1996	증감율
서울·경인	민수	20,477,355	19,082,305	7.47
	관수	2,780,018	2,316,747	20.00
	계	23,257,373	21,399,052	8.82
강 원	민수	2,277,545	1,936,858	17.59
	관수	749,412	555,331	34.95
	계	3,026,957	2,492,189	21.46
충 북	민수	2,189,819	2,197,386	-0.34
	관수	396,707	420,895	-5.75
	계	2,586,526	2,618,281	-1.21
대전·충남	민수	5,184,359	4,479,552	15.73
	관수	1,163,305	804,616	44.58
	계	6,347,664	5,284,168	20.13
전 북	민수	2,184,992	1,984,588	10.10
	관수	804,138	673,347	19.42
	계	2,989,130	2,657,935	12.46
광주·전남	민수	4,019,280	4,090,405	-1.74
	관수	1,279,347	924,626	38.36
	계	5,298,627	5,015,031	5.65
대구·경북	민수	6,147,637	5,590,762	9.96
	관수	1,411,659	1,460,453	-3.34
	계	7,559,296	7,051,215	7.21
부산·경남	민수	7,884,982	7,674,914	2.74
	관수	1,597,051	1,640,371	-2.64
	계	9,482,033	9,315,285	1.79
제 주	민수	584,660	490,610	19.17
	관수	238,253	186,138	28.00
	계	822,913	676,748	21.60
합 계	민수	50,950,629	47,527,380	7.20
	관수	10,419,890	8,982,524	16.00
	계	61,370,519	56,509,904	8.60

나타났다.

대전·충남지역은 각종 관급공사와 천안 쌍용동 택지개발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공사 및 송촌지구 택지개발공사와 관공서 신축 등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 착공한 천안-공주-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화하여 전년 같은기간의 5,284,168㎡보다 20.13% 증가한 5,298,627㎡를 출하하는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충북지역은 각종 건설현장이 완공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대형금융사고 및 지역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인한 건설경기의 침체와 청주등 도내 각 지역의 아파트가 대부분 미분양 상태로 남음에 따라 주택건설경기도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신규 건설투자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전년 2,618,281㎡대비 1.21%감소한 2,586,526㎡를 출하하는 부진을 보였다.

부산·경남지역은 전체적으로 레미콘생산 증가율이 소폭증가 하는데 그쳤다. 양산신도시 조성과 복합화물터미널, 양산 I.C.D 건설과 부산과 인접해 있는 양산북부지역 개발 및 진주지역의 아파트 공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제외한 부산·경남 전 지역의 건설경기가 크게 둔화되면서 9,482,033㎡를 출하하여 전년 9,315,285㎡ 대비 1.79%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그외 전북지역 12.46%(2,989,130㎡), 대구·경북 7.21%(7,559,296㎡), 광주·전남 5.65%(5,289,627㎡)증가하였다

이상 상반기 레미콘산업의 특징은 경기침체와 대형건설사의 부도로 인하여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관수레미콘의 증가세가 상대

〈표 7〉 97년도 하반기 레미콘 출하전망

(단위 : 천㎡, %)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sup>P</sup>		년 계 <sup>P</sup>		비 고
	전년대비 증 감 률		전년대비 증 감 률		전년대비 증 감 률		
서울·경인	23,257	8.68	27,301	4.88	50,558	6.6	
강 원	3,027	21.46	4,180	10.58	7,207	14.92	
충 북	2,587	-1.21	2,976	-1.06	5,563	-1.14	
대전·충남	6,348	20.13	8,079	14.14	14,427	16.7	
전 북	2,989	12.46	3,882	12.43	6,871	12.45	
광주·전남	5,298	5.65	6,144	4.86	11,442	5.22	
대구·경북	7,559	7.21	9,065	3.79	16,624	5.28	
부산·경남	9,482	1.79	10,607	1.26	20,089	1.51	
제 주	823	21.60	1,005	15.12	1,828	18.01	
전 국 총 계	61,370	8.60	73,239	5.69	134,609	7.00	

적으로 두드러지면서 관수레미콘이 전체 레미콘산업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별로 건설경기의 편차가 심화되어 지역별 레미콘 생산증가율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97년도 하반기 및 98년도 레미콘 산업 전망

상반기중 건설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였던 레미콘 산업은 하반기에는 상반기중 발주를 시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비롯한 공공도목공사 및 중·소규모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레미콘이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대형건설사 및 지방의 중소 건설사의 부도와 미분양 주택의 장기적인 적체등 건설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상대적으로 레미콘 출하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신규투자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일부 지방의 경기가 최악의 상태에 달하고 있어 레미콘 출하를 유발할 만한 대규모 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중 레미콘은 73,239천<sup>m</sup>를 출하하여 전년 동기대비 5.69%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월중 대통령 선거에 따른 선심성 공사 및 지역숙원사업이 다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건설경기 회복 촉진과 레미콘 생산량 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98년도 레미콘산업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1998년도 레미콘 출하전망

(단위 : 천<sup>m</sup>, %)

구 분	상 반 기 <sup>o</sup>		하 반 기 <sup>o</sup>		년 계 <sup>o</sup>		비 고
	전년대비 증 감 률	전년대비 증 감 률	전년대비 증 감 률	전년대비 증 감 률	전년대비 증 감 률		
서울·경인	24,100	3.6	28,666	5.0	52,766	4.4	
강 원	3,103	2.5	4,284	2.4	7,387	2.5	
충 북	2,643	2.2	3,104	4.3	5,747	3.3	
대전·충남	6,850	7.9	8,370	3.6	15,220	5.5	
전 북	3,256	8.9	4,144	6.7	7,400	7.7	
광주·전남	5,522	4.2	6,560	6.8	12,082	5.6	
대구·경북	7,861	4.0	9,610	6.0	17,471	5.1	
부산·경남	9,961	5.1	11,233	5.9	21,194	5.5	
계 주	890	8.1	1,078	7.3	1,968	7.6	
전 국 총 계	64,186	4.6	77,049	5.2	141,235	4.9	

내년에는 97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공사에 투입되는 관급레미콘이 민수용 레미콘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7년도와 마찬가지로 SOC투자확대에 따른 토목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및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2002년 월드컵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이 내년 하반기중에 본격적으로 건설될 것으로 보여 98년도에는 총 141,235천m<sup>3</sup>를 출하하여 전년동기대비 4.9%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원자재 수급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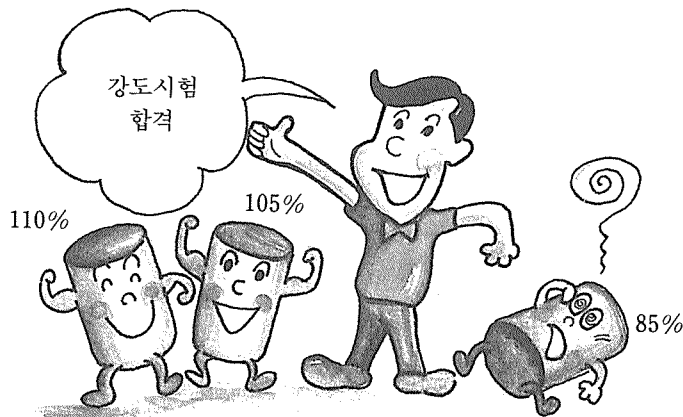
—시멘트—

시멘트는 전년도와 같이 올해도 4-5월 성수기에 일시적인 시멘트 수급난을 예상 하였으나 별다른 파동없이 무난한 수급상태를 보였다.

하반기중 시멘트 수요는 수출을 포함 32,417천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생산의 경우 상반기의 양호한 수급 사정으로 전년대비 1.5%감소한 30,290천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내수의 경우 사회 간접자본 투자 및 정부 시설공사의 조기발주에 따라 수요가 상반기에 편중되었고 96년 하반기 내수가 11% 증가했던데 따른 상대적인 둔화 현상으로 전년대비 2.7%감소한 31,890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골재—

하반기에는 수도권 및 전남지역의 바다모래와 육상모래 등의 허가량에 대한 채취가 8월말경에 완료되고 수도권 동부지역의 채취량도 점차 소진되어 수도권, 전남, 부산등 일부지역은 성수기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모래공급 부족현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자갈의 경우 석산자갈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량이 많아 하반기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판정은 3개의 평균치로